

독일의 On-lending 운용실태 조사

-조영삼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실)

1. 출장 개요

- 출장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 출장기간: 2008년6월8일 ~ 2008년6월13일 (4박5일)
- 출장자: 조영삼(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실)

2. 출장 목적

- 독일의 On-lending 운용실태 조사

3. 출장 조사내용

별첨: 독일의 On-lending 운용실태

독일의 On-lending 운용실태

1. 독일 은행 시스템의 기본구조 및 중소기업 금융 현황

- 독일의 은행 시스템은 독일연방은행을 중심으로 은행금융기관과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구분됨.
- 은행금융기관은 금융업무 전반을 겸업할 수 있는 일반은행(universal bank)과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은행으로 분류
 - 일반은행은 상업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은행으로 구분되고, 전문은행은 민영 또는 국영형태의 저당은행, 건축대부조합 등이 활동

독일 일반은행의 시장 점유율

단위: %, 개

| | 상업은행(민영) | 저축은행(공영) | 협동조합은행(민영) |
|------------|------------|-------------|---------------|
| 총자산 점유율 | 28.2 | 34.3 | 11.8 |
| 비은행대출 점유율 | 33.0 | 42.0 | 15.1 |
| 기업대출 점유율 | 16.2 | 43.1 | 14.5 |
| 은행 수(지점 수) | 356(5,300) | 475(15,000) | 1,295(14,000) |

- 중소기업 금융에 있어서는 저축은행과 단위 협동조합은행들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이체뱅크, 일반 상업은행 등은 투자은행 및 대기업 금융 중심으로 각각 차별적인 시장 영역을 갖고 있음.
- 저축은행의 경우 공법상 법인으로 소재지역 지방정부, 공공 컨소시엄, 주립은행 등이 출자한 공공기관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협동조합은행은 저축은행이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서민금융 및 중소기업 금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협동조합 운동의 일환으로 조합원 중심으로 결성된 민영은행으로 상공업, 농업, 철도 등 다양한 중소기업 분야 금융과 서민금융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은행은 양 기관 모두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을 기반으로 금융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독일 중소기업 금융에서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음.
- 최근 저축은행과 단위 협동조합은행은 전통적인 영역인 중소기업 금융 이외의 영역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반면, 일반 상업은행들은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 KfW의 일반 현황 및 기능

- 부흥은행그룹(KfW)은 1948년에 전후 재건사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독일의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 2003년 1월부터 중소기업 전문금융기관인 조정은행(DtA)을 흡수 통합함.
 - 지분 구성은 중앙정부 80%, 각 주정부 20%임.
 - 재원 조달 수단은 국내외 금융채 발행(신용등급 AAA)과 ERP 등의 정부기금 지원이며, 시장조달 90%, 정부 조달 10%임. 모든 채무 및 외부 발행채권에 대해 독일 연방정부가 지급보증함.
 - 총자산은 2006년말 기준으로 3,600억 유로이며, 순이익은 9.7억 유로임.
- 주요 기능 및 조직체계
 - 주요 기능으로는 투자금융 및 수출금융 지원, 중소기업금융 지원, 개발도상국 지원,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 등을 수행함.
 - 프랑크푸르트 본사와 베를린, 본의 지사 이외에 영업점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규모는 3,580명임. 해외 사무소
 - 조직체계는 KfW Promotional Bank, KfW Mittelstandsbank, KfW Development Bank(동 은행내 DEG 사업분야를 포함), KfW IPEX Bank 등 4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fW Development Bank 내 포함된 DEG 등 총 5개의 브랜드

를 보유함.

- 2008년부터 KfW IPEX Bank는 EU로부터 시장 경합성으로 인해 지원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브랜드로만 남게 되었으며, KfW Development Bank 내 DEG는 KfW 지분 100%인 자회사로 독립하였음.

○ 감독 및 사업주관

- 금융기관으로서의 부흥은행그룹에 대한 지휘·감독 기능은 금융부가 수행하지만, 4개 사업부문의 구체적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KfW Promotional Bank의 경우 건설부, 환경부, 교육부 등이, KfW Mittelstandsbank는 연방경제기술부가 주관하고 있음.
- 이러한 지배구조를 반영하여 부흥은행그룹의 이사회 의장직을 금융부와 연방경제기술부가 매년 번갈아 맡고 있음.

○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 및 규모

- KfW Promotional Bank

- 주택건설, 환경보호, 지방정부 인프라 구축, 학자금 대출, 모기지대출 유통화 등 사회개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금융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부흥은행그룹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KfW Mittelstandsbank

-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금융 여건 개선, 전통적 금융 지원수단의 발전 및 혁신적 금융 지원수단의 개발, 경영자문 등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음. 창업기업 대출, 바젤 II와 같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중소기업 금융상품 개발, 기업의 담보력 확충을 위한 자기자본 참여프로그램(Entrepreneur capital) 등을 통해 시장선도기능을 수행함.
- Mittelstandsbank의 자금지원 중 대출지원의 경우 독일 전체의 장기자금(대출 기간 4년 이상) 대출의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중소기업은행의 자금지원 현황

단위: 백만 유로, %

| | | 2004 | 2005 | 2006 |
|------------|-------|-------------|--------------|--------------|
| 총 지원규모 | | 13,971 | 15,520 | 22,827 |
| 세부 지원규모 | 대출 | 9,270(66.4) | 10,674(68.8) | 10,157(44.5) |
| | 메자닌금융 | 619(4.4) | 583(3.8) | 2,140(9.4) |
| | 지분투자 | 344(2.5) | 300(1.9) | 281(1.2) |
| | 유동화 | 3,738(26.7) | 3,963(25.5) | 10,250(44.9) |

자료: KfW

주: 잔액 기준이며, () 내는 비중임.

- KfW IPEX Bank

- 수출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함.

- KfW Development Bank

- 빈곤퇴치, 천연자원 보호, 평화유지 등 개도국 지원기능을 수행함.
- 동 은행 내 속한 DEG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금융 등을 통해 동구권 등 구사회주의 국가 기업들의 금융 지원업무를 수행함.

- 부흥은행그룹의 사업부문별 지원규모 추이를 보면 2007년말 기준으로 Promotional Bank가 전체 지원규모의 5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Mittelstandsbank가 27.2%를 차지함.

KfW의 사업부문별 지원규모 추이

단위: 억 유로

| | 2005 | 2006 | 2007 |
|----------------------|------|------|------|
| KfW Promotional Bank | 387 | 356 | 435 |
| KfW Mittelstandsbank | 155 | 228 | 233 |
| KfW IPEX Bank | 121 | 150 | 160 |
| KfW Development Bank | 19 | 25 | 30 |
| DEG | 7 | 9 | 12 |
| 합계 | 689 | 768 | 858 |

자료: KfW

주: 지원승인액 기준

- 2008년부터 IPEX Bank가 지원기능을 수행하지 않게 됨에 따라 향후 KfW는 Promotional Bank와 Mittelstandsbank 중심의 사업구조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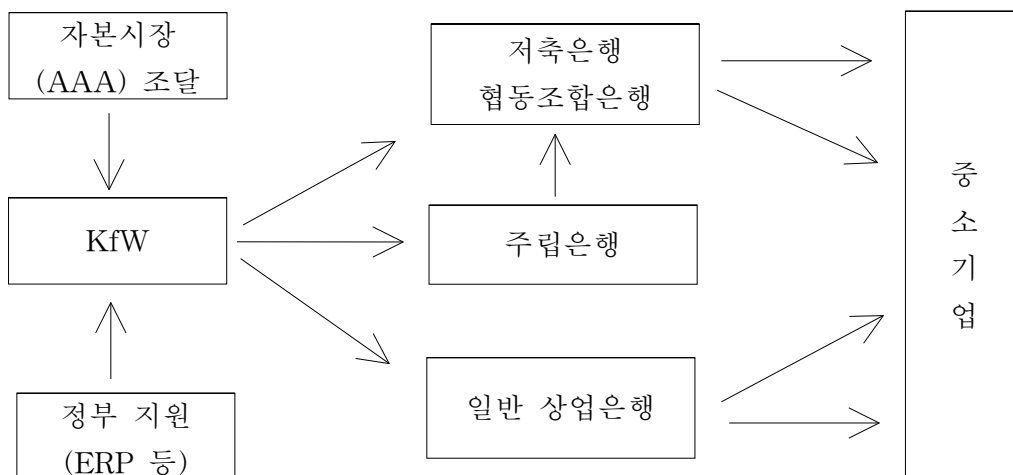
3. KfW의 On-lending 운용체계

(1) 기본구조

□ 도입 배경 및 성격

- 주 단위에서 주립은행, 투자은행이 정책금융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단위에서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은행 등이 주거래은행(Main Bank) 중심의 관계금융 기능이 정책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간접지원방식을 도입함.

KfW 중소기업은행의 지원 경로



- 이에 따라 독일의 On-lending 제도는 시장 활용형 방식이라는 성격과 함께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금융지원제도의 성격이 혼재된 것으로 파악됨.

- 독일 On-lending제도의 공공적 성격으로는 정책금융기관(KfW)의 높은 위험부담(창업기업, 소액대출 등), 후순위 부채에 대한 무담보, 일정한 신용도를 갖춘 기업에 적용하는 시장금리를 하회하는 금리구조 등을 들 수 있음.
- On-lending 제도는 제도 참여주체 모두에게 거래상 이점을 제공함.
 - KfW 중소기업은행 입장에서는 지점이 필요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따른 위험을 분담할 수 있음.
 - On-lending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KfW 중소기업은행이 경쟁관계가 아니라 금융기관 자체로는 취급하기 어려운 대상과 상품을 KfW 중소기업은행의 지원을 통해 취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을 유지할 수 있게 됨. 또한 거래 마진, 위험부담 완화 및 유동성 확보 등의 이점이 있음.
 -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금융 접근성이 보다 용이하게 되고 저금리 혜택도 누릴 수 있음. 또한 자금 지원과 함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래상 이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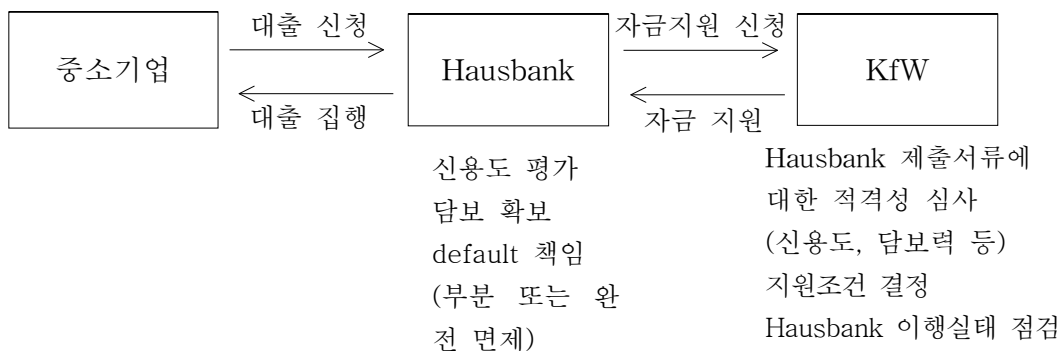
□ 기본 원칙

- 간접 지원
 - 수혜 중소기업들의 주거래은행인 Hausbank(저축은행, 협동조합은행 등)을 통한 간접 지원방식임. 즉 중소기업은행은 On-lending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기능을 수행하며, Co-financing 형태로 대출 재원을 제공함.
 - 중소기업은 주거래은행인 Hausbank(저축은행, 협동조합은행 등)에 대출을 신청하고, Hausbank로부터 대출을 지원받음. 즉 중소기업은 주거래은행인 Hausbank만을 상대함.
 - Hausbank는 중소기업(고객)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

는데, 정책성 대출은 KfW로부터 중소기업의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변제 의무를 부분 면제받는 형태로 위험을 분담함.

- 다만, KfW가 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신용도 평가에 한하여 Hausbank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KfW 자체 기준(무디스 신용평가 기준을 원용)으로 정밀 심사함.

KfW 중소기업은행의 지원방식



○ 경쟁 중립성

- 모든 은행에 On-lending 참여 기회를 부여
- On-lending 금융기관은 자기 상품을 중소기업에게 중점적으로 공급하며, On-lending 상품은 은행 상품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함.

○ 효율적 지원

- On-lending 금융기관의 지점망과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을 도모함.
- 또한 On-lending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KfW의 위험 분담은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됨.

□ On-lending 참여 금융기관의 구성

- 모든 은행에 On-lending 참여 기회가 개방되어 있지만, 실제 On-lending 금융기관이 KfW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기준으로 볼 때 저축은행 40%, 협동조합은행 40%, 일반 상업은행 20%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지원 프로세스

- 제 1단계 : On-lending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담보력 평가를 통한 가격 카테고리 설정
 - On-lending 금융기관은 내부등급법에 근거하여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신용도 카테고리를 설정함.
 - 신용도 평가에 있어 재무적 요소의 반영 비중이 60~70%, 비재무적 요소의 반영 비중이 30~40% 정도임.
 - 담보력은 차주가 제공한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담보력 카테고리를 설정함.
- 제 2단계 : On-lending 금융기관의 위험 평가 결과를 KfW의 가격 카테고리에 매칭하여 On-lending 금융기관의 공급 마진을 결정
 - On-lending 금융기관은 제 1단계에서 판정된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가격 카테고리를 KfW의 신용도 카테고리 및 담보력 카테고리에 매칭하고, 이를 통해 공급 마진을 설정함.
 - 공급 마진은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대출 위험도를 반영한 것으로, 대출규모에 따라 2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적용됨.

가격 카테고리별 리스크 마진 현황

| 대출규모 | A | B | C | D | E | F | G |
|---------------|-------|-------|-------|-------|-------|-------|-------|
| 125,000 유로 초과 | 0.65% | 1.00% | 1.30% | 1.60% | 2.10% | 2.80% | 3.50% |
| 125,000 유로 이하 | 0.90% | 1.25% | 1.55% | 1.85% | 2.35% | 3.05% | 3.75% |

자료: KfW

주: 2008년 6월 기준

- 리스크 마진은 가격 카테고리별로 차등 적용하고, KfW가 위험을 분담할 경우 KfW와 On-lending 금융기관은 이를 위험분담비율에 따라 배분함.

- 이 과정에서 KfW는 On-lending 금융기관의 담보력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그대로 수용함.

- 그러나 신용도 평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KfW가 On-lending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를 존중하지만, 양 기관의 평가 결과가 2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조정과정을 거치게 됨.

- 이 과정에서 KfW는 On-lending 금융기관에게 신용도 평가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추가 설명이 납득할 수준이면 On-lending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만, 추가 설명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 KfW가 신용도 평가 결과를 조정함.

- On-lending 금융기관이 KfW의 조정 결과를 수용하면 KfW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On-lending 금융기관은 자체 자금으로 대출을 제공하거나 대출 자체를 취소하게 됨.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On-lending 금융기관의 대출 마진이 설정되는데, On-lending 금융기관이 100%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는 가격 카테고리별로 설정된 리스크 마진과 대출 취급수수료를 합한 것이 On-lending 금융기관의 총 마진이 됨. KfW가 위험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가격 카테고리별 리스크 마진에서 KfW의 리스크 마진(위험분담비율에 따라 배분)을 차감한 리스크 마진과 대출 취급수수료를 합한 것이 On-lending 금융기관의 총 마진이 됨.

- 요컨대, On-lending 금융기관이 100%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지원대상 선별과정은 거의 전적으로 On-lending 금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며, KfW가 위험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리스크 마진과 담보권을 위험분담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KfW가 신용도 평가에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제 3단계 : KfW가 가격등급 및 금리 상한선 결정

- KfW와 On-lending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담보력 카테고리 매칭 결과를 기준으로 On-lending 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대상에 대한 가격등급 및 이자율 상한선을 결정하여 통보하고, 이를 On-lending 금융기관이 수용하면 On-lending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게 됨.
- On-lending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이자율 상한을 초과한 대출 금리를 지원 중소기업에게 적용할 수 없으며, 이자율 상한 미만의 대출 이자율 적용은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가능함.

□ 위험조정가격시스템의 기본체계 및 적용대상

○ 도입 배경

- 이전의 On-lending은 KfW의 지원 금리가 차주의 신용도와 담보력에 상관없이 고정되어 적용되었으며, On-lending 금융기관도 차주의 신용 리스크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리스크 마진(1%)과 대출 취급수수료(0.25%)를 수취하는 형태로 운용되었음.
- 이로 인해 신용도가 우수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마진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증대하고, On-lending 금융기관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On-lending 취급을 기피하는 성향이 증대함.
- 이에 따라 2005년 4월부터 차주의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한 위험조정가격시스템(RAP)을 도입하게 됨.

○ 위험조정가격시스템의 기본체계

- 위험조정가격시스템에서는 신용도 평가에 따른 6단계의 신용도 카테고리 및 담보력 평가에 따른 4단계의 담보력 카테고리가 기본 구성요소임. 신용도 카테고리는 차주의 1년 부도확률에 의해 결정되며, 담보력 카테고리는 차주가 제공한 담보가치에 의해 결정됨. 그리고 이들 신용도 카테고리 및 담보력 카테고리를 결합하여 7단계의 가격등급으로 설정한 것

이 위험조정가격체계임.

| 신용도 카테고리 | | | 담보력 카테고리 | |
|-------------|---------------|----------------|-------------|---------------|
| 신용도 카테고리 | 1년 후의 부도확률 | S&P 등급 | 담보력 카테고리 | 담보가치 |
| 1 | ≤0.3% | BBB and higher | 1 | ≥80% |
| 2 | 0.3%~0.9% | BBB- and BB+ | 2 | 50% 이상 80% 미만 |
| 3 | 0.9%~1.5% | BB | 3 | 30% 이상 50% 미만 |
| 4 | 1.5%~2.5% | BB- | 4 | <30% |
| 5 | 2.5%~4.5% | B+ | | |
| 6 | >4.5% | B and lower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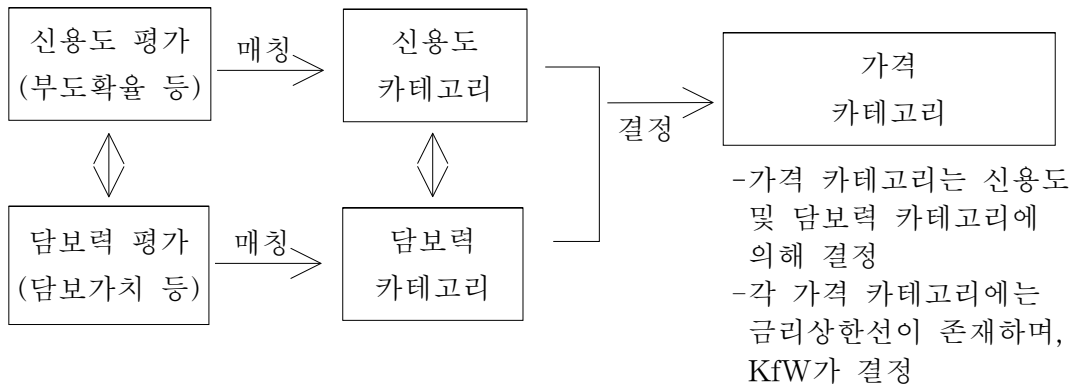
가격 카테고리는 신용도 및 담보력 카테고리를 결합하여 결정

| 신용도 카테고리 | 담보력 카테고리 | | | |
|-------------|----------|---|---|---|
| | 1 | 2 | 3 | 4 |
| 1 | A | B | C | D |
| 2 | B | D | E | F |
| 3 | C | E | F | G |
| 4 | D | F | G | |
| 5 | E | G | | |
| 6 | F | | | |

- 요컨대 위험조정가격시스템에 따른 On-lending 지원금리의 결정과정은 On-lending bank의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및 담보력 평가 → 이 결과를 Kfw의 신용도 및 담보력 카테고리에 매칭 → 가격등급 결정 및 이 자율 결정이라는 흐름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On-lending 지원금리의 결정 흐름도

On-lending 금융기관의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KfW의 신용도 및 담보력 카테고리



○ 위험조정가격시스템 적용에 따른 On-lending 운용구조의 변화

- 위험조정가격시스템을 적용한 이후 수혜 중소기업의 신용도 분포에 있어 이전에는 신용등급 BBB-까지 On-lending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동 가격시스템을 적용한 이후 수혜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하한이 BB-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위험조정가격시스템을 적용한 후 가격등급간 리스크 마진의 차등 폭이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즉 신용도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리스크 마진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리스크 마진은 상승함으로써 기업 신용도별 양극화 현상이 진전된 것으로 파악됨.

(2) 중소기업은행(Mittelstandsbank)의 주요 상품

1) Debt Financing : 선순위 부채

StartMoney

○ 대상기업

- 창업 3년 이내, 100인 이하 자영업 및 제조업

○ 대출조건

- 대출상한은 5만 유로
- 대출기간은 10년 이내(거치기간 2년)
- 대출금리 : 5.55%(5년 만기), 5.65%(10년 만기)
- 위험분담방식 : 손실발생시 전대기관은 20%만 부담
- 지원규모(2006년) : 1억 80만 유로
 - Entrepreneur Loan : 전통적인 기업대출 프로그램
- 대상기업
 - 연간 매출액 5억 유로 이하 기업(?), 대기업도 포함?), 구조조정이 진행중 이거나 유럽위원회가 한계기업으로 정의한 기업은 제외
- 대출조건
 - 대출상한은 천만 유로
 - 대출기간은 6~20년(거치기간 2년)
 - 대출금리 : 7단계(신용도 및 담보에 따른 위험조정이자율) 고정이자율 (분야 및 대상별 차등) 적용
→ 3.75~7.55%(6.60%?)
 - 위험분담방식 : 손실발생시 전대기관은 50%만 부담

2) Mezzanine Financing : 후순위 부채(후순위, 무담보)

- 도입 배경
 - 독일 중소기업이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독일 중소기업의 신용도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메자닌 금융을 통해 기업의 자기자본비율 제고 →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 경감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시행
- 지원규모 : 21억 유로(2006년)
 - Entrepreneur Capital : 메자닌방식(자기자본 확충)의 대출 프로그램
 - ERP Capital for Start-ups, ERP Capital for Growth, Capital for Work and Investment 등 3가지 종류
 - ERP Capital for Start-ups : 후순위 부채
 - 지원대상 : 업력 2년 미만
 - 대출상한은 총액 50만 유로, 필요자본의 40%(KfW 25%+창업기업 자체자금 15%)
 - 대출기간은 15년(거치기간 7년)
 - 대출금리 : 초기 4년은 연도별로 0, 3, 4, 5% 적용, 5년차부터 10년까지는 고정이자율(대상별 차등)이며 이후 새로운 이자율 적용,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리
 - 위험분담방식 : 손실발생시 ERP 후순위대출(subordinated loan)은 전대기관의 책임 면제
 - ERP Capital for Growth : 후순위 부채
 - 지원대상 : 업력 2~5년
 - 대출상한은 총액 50만 유로, 필요자본의 40%(KfW)
 - 대출기간은 15년, 금융기관에 의한 co-financing인 경우는 최소 5년 이상

(거치기간 7년)

- 대출금리 : 대출 10년차까지는 고정이자율(대상별 차등), 이후 새로운 이자율 적용, co-financing인 경우 전대기관이 이자율을 결정
→ 통상 구동독 5.1~10.35%, 구서독 5.35~11.03% (?)
 - 위험분담방식 : 손실발생시 ERP 후순위대출(subordinated loan)은 전대기관의 책임 면제
- Capital for Work and Investment : 50% 선순위 부채, 50% 후순위 부채
- 지원대상 : 업력 5년 이상
 - 대출상한은 400만 유로(선순위 200만 유로, 후순위 200만 유로)
 - 대출기간은 10년, 금융기관에 의한 co-financing인 경우는 최소 5년 이상 (거치기간 2년)
 - 대출금리 : 7단계(신용도 및 담보에 따른 위험조정이자율) 고정이자율(대상별 차등) 적용
→ 일반대출 4.5~7.35%, 후순위대출 5.6~9.2%
 - 위험분담방식 : 손실발생시 ERP 후순위대출(subordinated loan, 대출의 50%)은 전대기관의 책임 면제

3) Equity Financing

- 민간 투자회사의 중소기업 지분투자에 대한 공동 투자, 대출 제공, 투자보증(equity guarantee) 등을 수행

ERP Start Fund

- 지원대상 : 업력 5년 이하 기술주도형 중소기업

- KfW는 단순히 재무적 투자자, 민간 투자회사는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 총투자한도는 300만 유로(각각 150만 유로)
- 민간 투자회사는 중소기업의 경영을 모니터링하고, KfW로부터 수수료를 수취

□ ERP Participation Program

- 지원대상 : 중기~후기단계기업(매출액 5천만 유로 이하, 종업원 500인 미만)
- 민간 투자회사를 지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의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85% 이내에서 대출(대출기간 15년)을 지원
 - 총투자한도는 100만 유로
- 민간 투자자는 나머지 15%를 자체자금으로 투자하고, KfW 대출에 대해서는 100% 변제 의무 부담

□ KfW VC Program

- 중소기업 투자회사의 지분투자를 KfW가 50% 범위 내에서 보증(equity guarantee)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
 - 총투자한도는 500만 유로(각각 250만 유로)
- KfW는 구동독 지역은 50%, 구서독 지역은 40% 위험 부담

4) PROMISE(유동화 프로그램)

- On-lending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 자산의 신용위험만을 매입한 후 유동화 과정을 통해 자본시장에 매각
- 바젤 II 시행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적립 부담을 완화하고, 자

본시장과 금융기관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

○ 유동화 과정

- KfW가 은행과 CDS(Credit Default Swap) 계약을 체결하여 은행으로부터 보유한 중소기업 대출의 신용위험을 인수
- 인수한 신용위험을 위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등급(Tranche)의 증권으로 재분류하여 시장에 매각
 - 최상위 등급 증권은 우량투자자들과의 CDS 계약을 통해 위험 이전
 - 손실위험이 가장 큰 최후순위 등급 증권은 은행이 다시 인수
 - 중간등급 증권은 KfW가 서류상의 유동화회사(SPV)를 설립하여 인수
- SPV는 신용연계채권 발행을 통해 신용위험에 시장에 이전

○ 성과

-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
- 중소기업 대출에 내포된 신용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은행의 자기자본 비용 부담을 완화

4. 독일 On-lending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 대출상품별로 지원대상, 조건을 차등적으로 적용

- 전통적 기업대출 프로그램인 Entrepreneur Loan과 메자닌금융 중 Capital for Work and Investment(업력 5년 초과기업을 대상)은 기업 신용도와 담보별로 7단계의 위험조정이자율을 적용
- 정책성이 높은 ERP Capital for Start-ups(창업 및 업력 2년 이하 기업), ERP Capital for Growth(업력 2~5년)의 경우 시장 이자율에 비해 낮은 수준의 고정이자율을 적용

- on-lending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지원대상 및 분야별로 매우 복잡한 가격 (이자율)체계를 적용
 - 위험조정이자율은 신용도와 담보를 고려하여 7단계로 적용되며, 여기에 지원분야나 대상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
- 전대기관(on-lending credit institution)이 정책성 높은 대출을 원활히 취급할 수 있도록 전대기관의 위험을 분담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장선도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장의 중소기업 금융 취급 여력을 확충
 - 바젤 II 시행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신용도를 반영한 정교한 위험조정이자율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확충 효과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메자닌 금융인 Entrepreneur Capital을 시행
-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정책금융 대상기업의 신용도가 비교적 양호
 - KfW는 위험조정이자율 도입을 통해 종래 BBB-까지의 자금공급대상을 B+까지 확대한 것을 주요 성과로 평가하지만, 이러한 신용등급은 획일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우리나라 대상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양호함을 시사함